

후손 없는 독립운동가, 추모 공간 필요하다

호남지역만 무후선열 500위 합동추모 제단 등 조성해야 후손 확인작업 더욱 강화돼야

‘무후선열’을 아십니까?
무후선열은 독립운동을 했지만 후손들이 확인되지 않는 유공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호남지역에서만 500위에 달하는 만큼 이들 영령을 한 자리에 모셔 추모하고,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단이나 추모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나라를 위해 산화한 선열의 후손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해야 한다는 점에서 후손 확인 작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07년 호남의병활동부터 1919년 3·1 만세운동, 1929년 학생독립운동까지 우리

선조들은 한반도의 독립을 위해 한 마음으로 일제에 항거했다. 광주를 포함한 전라도에서만 정부에 의해 인정된 독립유공자는 모두 2107명이다. 북한을 포함한 10개 도에서 경상도(3420명), 평안도(2145명)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숫자다.

하지만 전라도 출신 독립유공자 중 후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비석으로나마 이름을 남겨 추모 받고 있지만 대부분은 기록상에서만 존재한다.

1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모두 1만 5689명이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이중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유공자는 5697명(36.3%)이다. 전라도 출신은 독립유공자 2107명 중 493명(23.3%, 전남 162명·전북 331명)이 무후선열이다. 올해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식 계기 정부 포상 때도 광주·전남 출신 46명

이 이름을 올렸지만 19명의 후손이 확인되지 않았다.

무후선열들의 훈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제작했지만 전수해줄 사람이 없어 후손이 확인될 때까지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에서 보관한다.

국가보훈처는 홈페이지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메뉴를 운영하고 있지만 후손이 확인되는 경우는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름이 알려진 독립운동가들은 후손이 없어도 기념사업회 등이 꾸려져 조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국립서울현충원의 경우 1975년 광복 30주년을 기념해 무후선열제단을 만들어 무후선열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숫자에 비하면 극히 일부다. 현재 선열 140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이곳에는 수

피아이고 교사였던 김마리아 선생, 초대 광주시장을 지낸 정광호 선생 등이 있다.

하지만 1919년 3월 광주만세운동 때 일제에 항거하다 팔이 잘리고 평생 특신으로 산 윤형숙(1900~1950) 선생, 1907년 기삼연 등과 호남의병으로서 일제와 싸우다 교수형을 당한 의병장 김봉규(?~1908) 선생 등은 마을 주민이 제사를 지내거나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합동추모제를 통해서만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무후선열들에 대한 추모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홍길 전남대 학생독립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은 “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무후선열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만들어 그들의 공적을 조명하고 후대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의병장 사당 앞서 “NO 아베” 광주 남구 대촌주민자치위원회 등 대촌지역 28개 자생단체와 주민 200여명이 13일 오후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이끈 고경명 장군을 모신 포충사 앞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일본 제품 안쓰고 안사기’ 선언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틀안 조속히 제정해달라”

시민모임, 광주시의회 기자회견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지난 2월 발의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13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원법을 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광복 74년이 됐지만,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아직도 일제가 씌

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처지”라면서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양쪽 모두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들은 “해방 후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일본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이 ‘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아예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나 역사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의 탓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어렵게 용기를 내 근로정신

대 피해자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위안부 피해자와 달리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위로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런 현실 앞에 한국 정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이미 지난 2월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틀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선 담담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되고 있다”면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위해 조속히 법률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경찰청 수사부서 과·팀장 역량평가로 책임성 높인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수사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선 수사부서 과·팀장의 수사 지휘 역량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수사 지휘 역량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최근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해, 대전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의 적절성, 수사 결과의 타당성, 전문성 등을 따져 평가 자료를 만든 뒤 승·진·보·직 인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연구진은 과거 연구 및 회의 사례를 분석하고 경찰 내부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중간관리자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11월 말까지 제시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근무평정이나 치안종합성과평가를 통해 수사부서 과·팀장에 대한 업무역량 평가가 부분적으로 이뤄졌고, 수사부서만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평가체계는 없었다”면서 “중간관리자의 역량에 따라 관서마다 달라질 수 있는 수사 품질을 균질화하고 전반적인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역량 평가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수사 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과·팀장 자격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총 414명의 수사팀장 직급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상향하는 직급조정을 다음 달 안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1 **달뜨기** 18:50
해질 19:23 **달질** 04:19

블래지수 높음
구름 많고 내륙 곳곳에 소나기 내리겠다.

광주	소나기	26/34	보성	흐림	24/33
목포	흐림	26/33	순천	흐림	26/35
여수	흐리고한때비	27/33	영광	흐림	25/34
나주	소나기	25/34	진도	흐림	25/32
완도	흐림	26/33	전주	소나기	26/35
구례	흐리고한때비	25/34	군산	소나기	26/33
강진	흐림	25/34	남원	소나기	25/33
해남	흐림	25/34	축산도	흐림	24/29
장성	소나기	24/3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남해 서부	북~북동	1.0~2.0	북~북동	1.5~2.5	
	남바다(동)	북~북동	1.0~2.0	북~북동	1.5~2.5
	남바다(서)	북~북동	1.0~2.5	북~북동	1.5~2.5

◇생활지수

- 위험
- 식중독
- 매우높음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7:06	01:46
	19:00	13:35
여수	02:35	08:23
	14:26	21:08

◇주간 날씨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	☁	☁	☁	☁	☁	☁
26/31	25/31	24/32	23/33	23/33	22/32	22/32

전남대 국내대학 평가 10위권 진입 ‘눈 앞’

전남대학교가 비영리 교육단체인 ‘CWUR’이 발표한 대학 순위에서 국내 12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기관들의 잇따른 대학평가에서 국내 11~13위를 차지하는 등 10위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특히 전남대는 세계적인 기관들의 객관적인 평가에서 연구역량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국내 순위가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 같은 기대를 더욱 키우고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비영리 교육단체인 CWUR(Center for World University Rankings)이 세계 20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9~2020 CWUR 평가 결과, 전남대는 총점

74.7점으로 국내대학 10위권에 불과 0.3점이 부족한 1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연속 이어진 순위이자, 거점국립대 3위에 해당한다. 세계 순위는 455위이나 연구수행력 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428위를 기록했다.

앞서 전남대는 로이터 뉴스의 ‘2019 아시아-태평양 최고혁신대학’ 평가에서 국내 13위, 거점국립대 2위, 아시아 50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순위는 국내 14위, 아시아 55위였다. 특히 이 평가에서 전남대는 특허출원건수 대비 특허 성공률이 무려 87.9%로 서울대, 칭화대, 도쿄대 등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채희종 기자 chae@

광주·전남 중고차 구입 피해 최근 3년간 47건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793건이 접수됐다. 광주와 전남은 같은 기간 각각 22건과

25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경기도(241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서울(147건), 인천(59건)이 뒤를 이었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이 수도권 업체들을 찾는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피해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희 기자 kimyh@

2019-2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수강생모집

“배움의 문을 두드리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모집

1 모집과정

전공	운영일시	과목당 모집인원	과목당 수강료	기타사항
미용학	주간(화, 수) 09:00~18:00(15주)	30명	20만원	
아동학	주간(월, 화, 수) 09:00~15:00(15주)	40명	15만원	영유아보육법 개정 필수 및 대면교과목 운영
사회복지학	야간(화, 수, 목) 17:00~23:00(15주)	40명	15만원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전공 및 자격 취득

- 미용학 전공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 미용사 면허증 취득)
- 사회복지학 전공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아동학 전공(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4 모집일정

- 접수 및 등록기간 : 2019년 7월 22일 ~ 9월 6일
- 교육기간 : 2019년 9월 9일 ~ 12월 20일 / 15주

5 접수 및 문의

- 950-3583~6 (평생교육원 행정실)
- 주소 : (우62396)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01 광주여자대학교 어등관 1층 3115호
- 홈페이지 : http://always.kwu.ac.kr

■ 비학위과정 모집

1 모집과정

■ 직업능력 교육과정

강좌명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원)	정원	강사명	비고
1 부동신경매슬무	목	19:00~21:00	20만	20	김찬수	
2 약용식물자원관리사	화	19:00~21:00	15만	20	양차열	
3 한자한문지도사(중급)	금	09:10~13:00	36만	15	선병공	24주
4 한자한문지도사(특급)	토	09:10~13:00	36만	15		
5 메이크업(국가자격증)	화	18:00~21:00	30만	20	손혜영	
6 네일(국가자격증)	화	18:30~21:30	30만	20		
7 네일(아트&창업)	목	18:30~21:30	30만	20	정다희	
8 실버요가지도자 2급 자격과정	월	18:30~20:30	20만	15		최경희
9 민요총체조지도자 2급 자격과정	목	18:30~20:30	20만	15		
10 미래 4차 산업시대 인재육성을 위한 독서지도사	화	10:00~13:00	17만	20	심명자	
11 대외기술코치 독서토론지도사	수	10:00~12:00	18만	20	김태숙	
12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하는 신나는 드럼 축구 (2인1조)	금	18:00~20:00	15만원	15	김태중	8주
	토	10:00~12:00				

2 모집일정

- 2019년 7월 22일 ~ 9월 6일

3 접수 및 문의

- 950-3583~3586(평생교육원 행정실)
- 홈페이지 : http://always.kwu.ac.kr

■ 문화예술 교육과정

강좌명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원)	정원	강사명	비고
1 화해정식(폴리리스트)	수	10:00~12:00	20만	20	임은주	
2 한국무용(호남살풀이)	수	10:00~12:00	20만	20	백미성	
3 한국무용(직물반)	수	13:00~15:00	20만	10	이재방	
4 검도와 호신술	화/목	18:00~20:00	20만	30	이재방	
5 난타	화	19:00~21:00	15만	15	채춘례	
6 유희&수채화	월	09:30~12:30	17만	12	문명호	
7 쉽게 배우는 연필만화	목	10:00~12:00	17만	12	박진휘	
8 리듬과 함께 활력 충전 "리인댄스"	월	17:00~19:00	15만	20	여순심	10주
9 힐링요가&필라테스	목	17:00~19:00	15만	20	여순심	10주
10 서예(초급)	금	10:00~13:00	17만	15	고재문	
11 서예(중급)	월	10:00~13:00	17만	15		
12 멋진 여행과 사진	주간	화	10:00~12:00	15만	20	유태준
	야간	화	19:00~21:00	15만	20	
13 한국전통춤(중급)	목	14:00~15:30	15만	20	박선옥	
14 한국전통춤(중급)	화	14:00~16:00	18만	20		
15 ★여행의 재미를 더해 주는 여행 스케치	수	10:00~12:00	15만원	12	박태명	
		18:30~20:30	15만원	12		
16 ★달빛 아래 허모니카	기초 심화	목	18:30~20:30	15만원	15	김재철